

황병우 號 지속성장 기반 마련, 체질개선 성과… 연임 ‘청신호’

iM금융그룹

지주 3분기 순이익 1545억 예상
전년 1225억 대비 26% 늘어나
대출 성장·건전성 개선 동시추진
금융권, 황병우 회장 연임에 무게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iM금융의 체질개선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권 전반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불확실성도 확산하는 가운데, 계열사별 수익구조 개선과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iM금융의 전략이 성과를 보이면서 내년 3월 인기가 종료되는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은 iM금융지주의 3분기 지배주주기준 순이익 전망치를 약 154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이는 작년 3분기의 1225억원과 비교해 약 26% 늘어난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4501억원으로, 전년 동기(4317억원) 대비 4.2%의 성장이 예상된다. iM금융은 지난 2024년 시중금융 전환 이후 ‘양적성장’보다 ‘질적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더뎠는데, 신규 영업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매출이 늘었다는 평가다.

앞서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취임 당시 ‘단기 성과주의에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매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당시 지방금융그룹이었던 iM금융(옛 DGB금융)이 시중금융그룹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계열사 전반의 강도 높은 ‘체질개선’을 통해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였다.

◆ iM뱅크 ‘리밸런싱… ‘니치마켓’ 공략
지난 2024년 5월 국내 최초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리밸런싱’을 우선시했다. 우량자주 중심으로 신규 대출을 공급해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여신 심사체계를 고도화해 대출 공급 체계도 다변화했다. 대출 성장과 건전성 개선을 동시 추진하면서 올 상반기 iM뱅크의 원화대출 잔액 규모는 60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6월 말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

기준 iM뱅크의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9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됐으며, 연체율과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 금리 상승세와 불경기 장기화로 올 상반기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거둔 성과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핵심 전략으로 부상한 PRM(기업금융전문가)도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PRM은 금융권 지점장급 퇴직인력을 고용해 단독 영업이 가능한 ‘인 기업금융 지점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전문성과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iM뱅크 소속 PRM의 1인당 생산성은 일반 행원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iM뱅크 소속 PRM이 공급한 전체 여신 잔액은 총 5조7817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2% 늘었다. PRM이

공급한 여신의 연체율은 전체 은행 여신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해 건전성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iM뱅크는 PRM 제도를 적극 확대해 기존 시중은행이 공략하기 어려운 ‘니치마켓(틈새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출을 위한 자금 조달 구조도 개선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비대면 영업을 적극 확대하고, 신규 자금을 유치한 결과다. 올 상반기 iM뱅크의 총수신 규모는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원가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핵심예금 비중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6.7%포인트(p) 높아진 38.3%까지 올랐다.

◆ ‘질적성장’ 가시화… 연임 ‘청신호’
‘질적성장’을 우선시한 iM금융그룹의 전략이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금융권에

서는 황병우 현 iM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황 회장의 첫 임기가 오는 2027년 3월로 종료되는데, iM금융지주가 9월부터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해서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도전을 확실히하고 있다. 특히 iM금융지주는 지난 8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황 회장은 연령을 비롯한 필수적인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iM금융이 지난 2024년 시중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며, 황 회장의 경영 전략의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임추위가 공개한 요건에 ▲대내외의 신망 ▲리더십과 그룹 비전 등의 항목이 포함된 만큼, 황 회장은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iM금융 회추위는 현재 내부·외부 후보군으로 구성된 톱리스트(1차 회장후보군)를 검토중으로, 오는 11월 숏리스트(2차 회장후보군)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강래 iM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성공적인 시중금융그룹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최최의 후보를 추천해 회추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임추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해킹·정보유출 핵심 쟁점… 5대 은행장, 국감증인 출석

보안 취약점·대응체계 질의 예상
경영진 관리감독 책임도 물을 듯

5대 시중은행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앉는다. 지난 2022년 대규모 횡령 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면 올해는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금융보안 체계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오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를 점검하기 위해 이들 은행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5대 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것은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문제가 쟁점이 됐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공격의 경위와 대응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공격을 받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공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의 기존 보안체계가 새로운 공격 방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신한은행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는 AI 기반 자율형 침투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은행별 보안 취약점과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발생 전 보안 점검과 취약점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사고 인지 이후 금융당국 보고와 고객 통지 등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무엇보다 은행장들이 직접 증인석에서는 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금융사기 예방 역량 역시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포착돼 임시 조치된 거래 가운데 실제 사기로 확인된 거래는 8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4343건보다 4417건(101.7%)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5대 은행의 FDS가 포착한 의심 거래는 약 111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이제 지연 등 임시 조치가 이뤄진 거래는 15만7810건이다

은행권은 국감을 앞두고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고객 피해 보상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상장지수펀드(ETF) 불완전 판매, 가계대출 관리, 이자이익, 생산적·포용금융 등 은행권 현안으로 질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횡령 등 내부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를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외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보안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금융보안이 단순한 전산 관리 지원을 넘어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책임체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리브모바일 ‘KB글로벌 스타’ 출시 외국인 통신 편의 지원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외국인 고객의 통신 이용과 국내 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요금제 ‘KB 글로벌 스타(Global Star) 7GB+’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KB 글로벌 스타 7GB+’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용 요금제다. 1만원대의 월 기본료(1만9900원)에 월 7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점 방문 없이 KB리브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고객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외국인 단체상해보험을 요금제 기본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 외국인요금제 단체상해보험 서비스를 1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며,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을 비롯해 골절화상·상해수술 등을 보장한다.

KB리브모바일은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연말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요금제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개통한 만 19세 이상 외국인 고객 중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환전 및 해외송금 등에 이용 가능한 ‘KB금융쿠폰’ 3만원을 제공한다. 외국인 단체상해보험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리브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가 외국인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국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다양한 생활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청주에 두 번째 ‘굿월스토어’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 오픈

우리금융그룹이 지방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장 ‘굿월스토어’의 청주지역 내 두 번째 점포를 열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매장 ‘굿월스토어’ 및 발달장애인 주흥덕점’ 개점 기념식을 개최했다.

‘굿월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발달장애

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밀알청주흥덕점’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밀알청주상당점’에 이어 청주지역 내 두 번째이자 우리금융이 지원한 전국 18번째 매장으로, 지역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지방 거주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굿월스토어 건립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대구, 안산, 청

주 등에 이어 올해 하남, 전주, 청주 등에 신규 매장을 열었으며, 오는 11월에는 충남 천안에도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다.

신건우 우리금융미래재단 과장은 “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굿월스토어를 확대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